

광주 집값 상승률 전국 최저

〈단독주택〉

전국 평균 3.53% 상승 불구 1.14% 그쳐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3% 이상 상승한 가운데 광주 지역 표준단독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상승률이 0.05%였던 점을 감안하면 미미하지만 단독주택 매입수요 및 주택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3.53%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9년 -1.98%로 뒷걸음친 뒤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등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로는 중앙정부 이전에 따른 개발이 한창인 세종의 상승률이 19.18%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충북(4.02%), 서울(3.98%), 부산(3.83%), 전북(3.7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다.

반면 광주는 1.1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의 표준단독주택 3953가구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단 1가구에 불과했다. 비슷한 규모의 대전(3569가구)과 울산(2743가구)이

각각 45가구, 22가구가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고가 주택이 거의 없는 셈. 반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1221가구나 꽤 대전(257가구), 울산(207)보다 가격이 낮은 주택이 훨씬 많았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불균형 해소 노력 등을 꼽았다.

표준단독주택은 400만 가구에 달하는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데 기준으로 삼기 위해 뽑은 표본 주택이다. 이렇게 나온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재래시장서 농지은행 홍보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운) 임직원들이 설명회를 앞두고 28일 광주시 광산구 승정동 재래시장을 찾아 '2030세대 농지지원 및 농지은행사업' 거리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은, AI 피해 농가 500억 특별 금융지원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및 관련 업체에 대해 특별 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한다.

광주은행은 긴급 유동성 자금 신규 지원 200억원과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 300억원 등 총 500억원의 특별자

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광주은행은 AI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피해복구 자금, 생활안정자금, 결제대금 미회수로 인한 유동성 관리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피해 업체의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기 취급 기준을 예외 적용해 상환금액

없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분할상환금 납입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의 금융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의 모든 금융으로 사할에 대해 광주은행 모든 지점에서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 지원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DB 생명’ 고객중심 가치 구현 새도약

호남지역에 뿌리를 둔 ‘KDB 생명’이 금융생명에서 KDB산업은행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더욱 커져 제2의 도약을 맞고 있다. 특히 KDB생명은 최근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지상 30층 신축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해 더욱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

진군, 진도군 등 11개 지자체에서 6000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KDB생명 입장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 그럼에도 KDB생명은 더불어 사는 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를 조성기 위해 광주 산구와 신생아 건강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저출산 고

수 있다는 소신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출시된 보험상품이 KDB생명의 ‘실버암보험’이다.

실버암보험은 고령자 전용이지만 KDB생명이 최근 5년동안 출시한 보험상품 중에서 초기 판매 실적이 가장 좋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가입 고객이 서울 등 타지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정도로 호응이 뜨겁

자는 60세 이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가 직접 계약하면서 보험 대상을 고령자인 부모로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 상품은 부모를 위해 자녀가 대신 가입해주는 경우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2% 할인해주고 있으며 당 노병과 고혈압 환자도 별도의 가입 심사나 추가 검진 없이 가입할 수 있다.

KDB생명의 실버암보험은 일반 암에 걸리면 2000만원, 유방암이나 난소 생식기 관련 암에 걸리면 400만원, 갑상선암 등은 200만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한편 광주지역본부에서는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25개 집포, 약600여명의 생애 재무 설계사(FP)들이 고객이 보험상품을 통해 가족과 건강에 대한 위험대비는 물론 노후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승현 광주지역본부장은 “KDB생명은 상품판매시 항상 고객 입장에서 설명하고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여 정직하게 판매하는 고객 중심 기업, 공적 유익을 주는 사회 친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것이다”며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KDB생명이 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해 신생아 3만명 건강보험 가입 지원 ‘실버암보험’ 출시 두달만에 2만명 가입 인기

KDB생명은 이윤추구 중심의 기업경영보다 고객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공동창출하겠다는 경영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는 신생아 태어난 KDB생명 신생아 건강보험에 가입해 준다. 광산구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DB생명과 손잡고 신생아에 대해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KDB생명은 신생아에게 암, 질병, 질병 뿐만 아니라 만기 보험료 환급 등 다양한 보장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신생아 건강보험지원사업은 2013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53개 지자체에 약 3만명, 광주와 전남지역은 목포시, 화순군, 강

령화, 건강과 사고위험 대비, 자산형성과 증식, 노후대비 등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통 관심사다. 단순히 외부 보드용으로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를 갖는 식의 CSR에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기업 성장을 함께 창출하는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로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KDB생명은 이러한 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항상 보험상품 개발에 앞서 ‘과연 소비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따져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출시할

다. 부모가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등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가 대신 가입해주는 효도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자녀가 부모의 발병에 대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데 암보험에서는 보기 드물게 비갱신형(가입 시점의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방식)인 점도 인기 배경으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암보험 중에서 비갱신형 상품이 없었다. 때문에 실버암보험은 출시한 지 두 달 만에 2만명 이상이 가입하는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 상품은 만 61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

광주·경남은행 분할 승인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할을 승인했다. 앞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JB금융지주와 BS금융지주를 선정할 바 있다.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분할은 이렇듯 두 지방은행을 JB금융과 BS금융에 매각하기 위한 절차다.

인적분할 방식으로 떨어져 나오는 광주은행은 KJB금융지주로 설립·매각된다. 분할 기일은 3월1일이다.

이후 채권자 이익 및 구주권 제출 공고(1월29일), 매대거래정지(2월27일~3월16일), 우리금융 변경상장 및 KJB·KNB금융 재상장(3월17일 예정)으로 진행된다. <연남뉴스>

오비맥주-광주대 상호협력 양해각서 주류유통사 임직원 교육

오비맥주(대표 장인수)는 27일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와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호남지역 주류유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비맥주는 2012년부터 명지대와 함께 유사한 형태의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으며 지난해 말 부경대, 한성대, 경남대, 영남대와 올해 광주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오비맥주는 광주대학교와 함께 올 상반기부터 주류유통사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주류유통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고객 만족, 영업협상스킬, 선진회계관리



오비맥주 호남권역 본부장 이영우 상무(왼쪽)와 광주대 산학협력단장 이규훈 교수(오른쪽)가 27일 업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OB제곡>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학기부터 개설되는 광주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호남지역 주류유통사 임직원들에게 오비맥주만의 경영관리 노하우

를 전수해 업무능력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 유통사와 상생, 발전하는 항토 대표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16.93 (+6.59)	▲ 코스닥지수 509.29 (+1.78)	▼ 금리 (국고채 3년) 2.87% (-0.01)	▼ 원·달러 환율 1081.20원 (-2.40)
----------------------------	---------------------------	--------------------------------	-------------------------------

풍성한 날로

감오년에는 사랑과 우정의 마음을 쉽게 전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감오년에도 희망찬 한해가 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TEL. 02-521-4405
호남지사 [전주시 서신동] TEL. 063-275-7766